

전 주 말씀 요약 (6 / 23) 2013

제 목 : 예수님의 형제와 자매와 모친

성경말씀 : 마가복음 3 : 31 ~ 35

많은 사람들이 육신의 혈통과 관계를 중요시 한다.
그래서 가문과 문중을 보기도 하고 자기 가문이나 문중에서
어떤 사람들이 있는가를 내세우며 자랑하기도 한다.
그러나 예수님은 본문에서 혈연과 가문보다 더 중요하고 존귀한
것이 무엇인가를 말씀하셨으니 우리의 모범이자 표준이시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로서 사역을 시작하신
얼마 후, 예수님이 미쳤다는 소문이 돌았다.

30세까지는 가난한 목수집안의 큰 아들로써 성실하게 집안 일
을 돕던 예수님이, 어느 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후에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다리고
사모하는 그리스도이심을 증거 하시니,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실체를 이해하지 못하고, 미친 사
람으로 취급했으며, 심지어는 예수님의 부모와 형제들까지도
예수님을 미쳤다고 하여 찾아 나선 것이다.(마가3:21)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에워싸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모친
과 형제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없음으로, 중간에 있는 사람이
예수님께 말을 전한다.(누가8:19)

“보소서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이때 예수님의 말씀이 “누가 내 모친이며 동생들이냐 ?”하시며
자기를 따르는 자들을 향하여 “내 모친과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는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
이라” 고 말씀하셨다.

육신적으로는 아무리 부모요 형제요 자매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하지 않는다면 그는 예수님과 관계가
없고 가족이나 혈연으로 맺어진 것도 무의미하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것은 무엇인가 ?

첫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하나님 말씀대로 실천하고
행하여야 하는 행위적인 것으로 오해를 하고 있다.

그렇기에 마태 7: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 말씀도 행위적인 것으로 왜곡하여 미혹을 하고 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말씀의 실천이나 행함이 아니고,
예수님을 인간 예수가 아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으로 믿는 것이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
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살리리라”(요한복음 6:40, 신154)
제아무리 성경 말씀을 많이 읽고 또 실천과 실행을 한다 하여도
예수님을 인간 중에 뛰어난 한 사람이나 성현으로 생각한다면
이는 하나님의 뜻대로 한 것이 아니요 예수님의 형제자매가 될
수 없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이것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다.

둘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약에 위대한 선지자 중 한 사람으로
생각할 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셨다.(마태16:13~19)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
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했다.

“그리스도”란 구약 히브리 원어로는 “메시아”요 우리말로
“구세주”이다. 즉 나(우리)를 죄악과 마귀의 울무와 사망과 지옥
형벌에서 구원하시고 부활과 천국의 영원한 생명과 행복을 주시는
왕이시며 선지자시며 제사장으로 믿고 만족해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신앙고백을 듣고 “네가 복이 있다.”
“이를 알게 한 이는 사람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라 하시며 음부의 권세를 이길 천국 열쇠를 주겠다.” 하셨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인간 예수가 아니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것이” 곧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한 것이
며, 이렇게 믿는 사람이 예수님의 형제요 자매가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육신의 가족이나 혈연으로는 아무 관계가 없다하여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만 한다면 곧 예수님의 형제요 자매가
되는 것이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과 형제자매가 되는 것은
곧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 육신의 목숨이 죽는다 하여도
우리 영혼이 살아서,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과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을 바르게 믿는 사람은, 성삼위 하나님이 너무도
고맙고 감사해서, 하나님 말씀인 성경의 말씀대로 순종하게 되고
말씀을 순종함으로 받는 축복까지 상급으로 받아 누리게 된다.

대한 예수교장로회
신앙고회

고회를 교회되게 하는 교회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 가너회를 쉬

게 하리라 하나님 이

세 상을 이 처럼 사랑 하사 독생

자를 주셨

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

망치 않고

영생을 얻

게 하려 하

심이니라

담임목사 : 김 성 진

681-7001, 7008. 010-3861-7009

홈페이지 www.sinamch.com

이메일 : sinamch @ hanmail.net

사무장로 : 문정용 김정환 홍의남

찬송인도 : 임미이 홍희석 최명희 찬양지휘 : 이정순

반주 : 임예진 박진하 이다솔

주 일 낮 예 배

* * * * *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할지니라

1부 예배 (오전 7:45 교육관) 집례 김 성 진 목사

2부 예배 (오전 11시 본 당) 집례 김 성 진 목사

주 악 : 심신을 정결하게 예배에 임하는 기도

찬 송 : 1. 40 (새 찬송가 1, 79)

☆ 신앙고백 : 사도신경 낭송

☆ 성경교육 :

- 때에 예수의 모친과 동생들이 와서
-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 무리가 예수를 둘러앉았다가 여쭙기를
- 보소서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과 누이들이 찾아이다.
- 대답하시되 누가 내 모친이며 동생들이나 하시고
- 둘러앉은 자들을 향하여 보시며 말씀하시기를
- 내 모친과 내 동생들을 보라 !
- 누구든지
-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는
-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찬 송 : 93 (새 찬송가 93)

기 도 : 목 사

성경봉독 : 목 사 : 마가복음 3 : 31 ~ 35, 신 57

찬 송 : 찬양대

말씀선포 : 목 사 : 예수님의 형제와 자매와 모친

기 도 : 말씀대로 살고자 다짐하며

찬 송 : 104 (새 찬송가 104)

연 보 : 징성을 다하여 연보함에

교회소식 : 사랑의 인사를 나누세요 (문정용 장로)

☆ 송 영 : 3 (새 찬송가 5)

☆ 축 도 : 목 사

섬기는 사람들 [6 월 안내]

남, 홍의남 조상희 공옥렬
여, 오정순 노인숙 이춘자 이춘희 김 선 유덕남

주 일 오후 예 배 (오후 2시) 한나 헌신예배

사 회 : 최순희 집사 (다음 채혜경 집사)

기 도 : 유정숙 집사 (다음 이윤교 집사)

말씀증거 : 김성진 목사 사무엘하 강해

합심기도 : 다같이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

수 요 저 녁 예 배 (저녁 7시 30분)

사 회 : 채현숙 집사 (다음 박숙희 집사)

기 도 : 정종모 집사 (다음 이경순 집사)

말씀증거 : 김성진 목사

합심기도 : 다같이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

새 벽 기 도 회 (매일새벽 5시)

인도 : 목사 (마태복음 강해) - - - 자유로이 기도

유, 초 등 부 예 배 (주일오전 9시, 본당)

예배, 각 반 분반 공부 (사무엘하) 문정용 홍의남 장로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장성한 후에도 바로 하리라

중, 고 등 부 예 배 (주일오전 9시, 교육관)

1 부 : 말씀증거 : 김성진 목사

2 부 : 각 반 분반 공부 (사무엘하)

청 년 부 예 배 (주일오후 3시 30분) 김정환 장로

청년이여 네 청년의 날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마음에서
원하는 길과 눈이 보는 대로 좇아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인하여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금 요 밤 기 도 회 (밤 8시)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니라.

2013 년 도 신 앙 표 어 말 씀

여호와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 * * * * 교 회 소 식 * * * * *

1. 헌신예배 안내

오늘 오후 2시 예배는

한나 여전도회 헌신예배로 드립니다.

정성으로 준비하여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2. 화 요 전 도 모 임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전도사역이 펼쳐집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한 영혼을 사랑하여 전도합니다.

3. 수 요 은 혜 의 시 간.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은혜의 시간이 펼쳐집니다.

4. 금 요 구 역 연 합 예 배 와 밤 기 도 회.

금요일(28일) 오전 10시에 구역 연합예배를 드리며

밤 8시에는 에스더 여전도회 주관 기도회로 모입니다.

함께 하셔서 기도에 은혜를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신앙 교회에 출석하여 믿음의 가족이 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진리의 말씀과 성령님의 충만하신
은혜로 기쁘고 복된 신앙생활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새로 나오신 분 환영합니다.

- | | |
|----------------|--------|
| ☺ 류순임 님 | 풍암 주택 |
| ☺ 김종호 김지영 님 하운 | 풍암 주택 |
| ☺ 정제인 조경아 님 | 봉선동 모아 |

금주의 말씀 요약 (6 / 30) 2013

제 목 :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성경말씀 : 잠 언 22 : 4 ~ 6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른들과 아이들을 생각할 때 어른들에게 너무 많은 무게를 두고 아이들을 가볍게 생각한다. 그럴 수도 있지만 우리 주님의 뜻을 살펴보면 주님께서서는 어른들 못지않게 아이들을 매우 귀중하게 여기셨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축복의 언약을 세우실 때, 아브라함과 어른하고만 세우신 것이 아니요 대대로 그 후손들과 세위 하나님으로 축복을 말씀하셨고.(창세기17:6-7 9-12) 출생한 8일 만에 할례를 행하여 아무 것도 모르는 어린 아기 이삭을 하나님의 축복의 백성으로 삼으셨으며.(창세기 21:4) 또한 집을 나와 어려움을 당하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창세기21:17) 신약에도, 어린아이들이 주님께 오는 것을 꾸짖는 제자들에게, 아이들이 주님께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시며, 아이를 안고 안수하시고 축복하셨다.(마가복음10:13-16)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보리떡 다섯 개 물고기 두 마리로 오천 명을 먹이고 열 두 바구니를 거둔 오병이어의 기적이, 어른들의 헌물이나 헌금이 아니었고, 한 아이가 점심으로 가져온 것을 헌물 한 것에 대한 대 역사였다.(요한복음6:8-13) 천국에서 큰 자, 천국에 들어갈 자가 어린아이와 같은 자라 하시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요, 누구든지 주님을 믿는 작은아이 하나라도 실족시키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달고 바다에 빠지게 하는 것이 더 낫다고 까지 말씀하셨다.(마태복음18:1-6)

그러므로 우리는 어린아이들을 새롭게 대해야 한다.

첫째, 작은아이라 업신여기거나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

어른이나 아이나 똑같은 한 생명이지 영혼이기 때문에 함부로 할 대상이나 업신여겨서는 안 된다.(마태복음18:10) 대개 어른들은 어린아이들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가벼운 대상으로 알고, 어른들의 마음과 감성대로 좌지우지하려 하고 어른들의 뜻대로 지도나 인도를 하려 하는데,

이는 주님의 말씀에 합당치 않은 일로 삼가 해야 하며 어른과 같은 인격체로 알고 잘 대우해 주어야 한다.

둘째, 귀중하게 여겨 사랑해 줘야 한다. (마태복음18:5, 10:40)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곧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 하셨는데, 어찌 귀중하게 여기지 않을 수 있고 어찌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겠는가?!!

귀중히 여겨 사랑하되 자기 아이들이나 손자 또는 친척이나 가족들과 관계가 있는 아이들만 귀중히 여기는 것이 아니고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어린아이들을 귀중히 여겨 사랑해야 한다.

셋째, 어린아이들의 영혼이 잘되게 해줘야 한다.

본문 1절에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하셨고, 4절에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 하셨다.

5절에 “패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울무가 있고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를 멀리 하느니라.” 고 하셨다.

“은총”이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을 뜻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길은 곧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성삼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세상에서 많은 재물과 명예를 얻었다 하여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면 그는 불행한 인생, 멸망당할 인생이 된다.

그러므로 어린아이들이

1. 교회에 출석하여 믿음을 감도록 잘 해 주어야 한다.
2. 어린아이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한다.
3. 성경 말씀으로 잘 가르쳐 줘야 한다.

주일학교나 여름 겨울 성경학교에서 다른 어떤 프로그램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말씀을 잘 가르쳐 주어야 한다.

어떤 재미있는 프로그램이나 동화 같은 것으로 어린아이들을 재미있게 해줄 수는 있다. 그러나 어린아이들의 영혼을 살릴 수는 없고, 그들의 영혼을 아름답게 성장시킬 수는 없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 말씀이라”(로마서10:17)

“영혼이 잘 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 하라.”(요한3서1:2-4)

어른들 자신들이 먼저 말씀을 잘 익히고 순종하여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아이들이 배우고 익히며 따르도록 잘 가르쳐야 한다.

이 길만이 생명을 살리는 길이며 영원한 축복을 받는 길이다.

이 일이 잘되면 이일에 관계된 모든 이가 다 같이 축복을 받는다.

대한 예수교 장로회 신암교회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교회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

게 하리라 하나님 이

세상들이 처럼 사랑하사 독생

자를 주셨

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

망치 않고

영생을 얻

게 하려 하

심이니라

담임목사 : 김 성 진

681-7001, 7008. 010-3861-7009

홈페이지 www.sinamch.com

이메일 : sinamch@hanmail.net

시무장로 : 문정용 김정환 홍의남

찬송인도 : 임미이 홍희석 최명희 찬양지휘 : 이정순

반주 : 임예진 박진하 이다솔

주 일 낮 예배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할지니라

1부 예배 (오전 7:45 교육관) 집례 김 성 진 목사

2부 예배 (오전 11시 본 당) 집례 김 성 진 목사

주 악 : 심신을 정결하게 예배에 임하는 기도

찬 송 : 2. 55 (새 찬송가 6, 15)

☆ 신앙고백 : 사도신경 낭송

☆ 성경교육 : 잠언 22장

○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 패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울무가 있거니와

◎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를 멀리하느니라.

○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 그리하면 늙어도 그 길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 아 멘 -

찬 송 : 241 (새 찬송가 202)

기 도 : 문정용 장로

성경봉독 : 목 사 : 잠 언 22 : 4 ~ 6 구 933

찬 송 : 찬양대

말씀선포 : 목 사 :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기 도 : 말씀대로 살고자 다짐하며

찬 송 : 453 (새 찬송가 570)

언 보 : 정성을 다하여 연보함에

교회소식 : 사랑의 인사를 나누세요 (김정환 장로)

☆ 송 영 : 8 (새 찬송가 6)

☆ 축 도 : 목 사

접기는 사람들 [7 월 안내]

남, 문정용 조상희 공옥렬

여, 오정순 노인숙 이춘자 이춘희 김 선 유복남

주일 오후 예배 (오후 2시)

사 회 : 채혜경 집사 (다음 오정순 권사)

기 도 : 이운교 집사 (다음 임수정 집사)

말씀증거 : 김성진 목사 로마서 강해

합심기도 : 다같이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

수요 저녁 예배 (저녁 7시 30분)

사 회 : 박숙희 집사 (다음 이인순 집사)

기 도 : 이경순 집사 (다음 백금숙 집사)

말씀증거 : 김성진 목사 이사야서 강해

합심기도 : 다같이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

새벽 기도회 (매일새벽 5시)

인도 : 목사 (마태복음 강해) - - - 자유로이 기도

유, 초등부 예배 (주일오전 9시, 본당)

예배, 각 반 분반 공부 (사무엘하) 문정용 홍의남 장로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장성한 후에도 바로 하리라

중, 고등부 예배 (주일오전 9시, 교육관)

1 부 : 말씀증거 : 김성진 목사

2 부 : 각 반 분반 공부 (사무엘하)

청년부 예배 (주일오후 3시 30분) 김정환 장로

청년이여 네 청년의 날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마음에
원하는 길과 눈이 보는 대로 좇아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인하여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금요 밤 기도회 (밤 8시)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니라.

2013 년도 신앙 표어 말씀

여호와와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 교 회 소 식 *****

1. 화요 전도모임

매주 화요 오전 10시부터 전도사역이 펼쳐집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한 영혼을 사랑하여 전도합니다.

2. 수요 은혜의 시간.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은혜의 시간이 펼쳐집니다.

시간을 내서 함께하시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십니다.

3. 금요 밤 기도회.

금요일(5일) 밤 8시에는

1교구 전 구역 주관 기도회로 모입니다.

함께 하셔서 기도에 은혜를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신암 교회에 출석하여 믿음의 가족이 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진리의 말씀과 성령님의 충만하신
은혜로 기쁘고 복된 신앙생활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새로 나오신 분 환영합니다.

☺ 류순임 님

풍암 주매

☺ 김종호 김지영 님 하운

풍암 주매

금주의 말씀 요약 (7 / 7) 2013

제 목 : 내 보물은 어디에 쌓을 것인가 ?

성경말씀 : 마태복음 6 : 19 ~ 21

“구구 팔팔” 구십 구세 까지 팔팔하게 살다 가자던 황수관 장로는 하늘나라로 먼저가고 수많은 사람들이 남아 있다.

이렇게 사람의 수명이 늘어나면서 노후에 대한 준비를 하는데 경제적으로는 돈을 저축하며 생명보험이나 암보험이나 여러 가지 보험에 들기도 하며, 육신적으로는 건강관리에 힘을 써서 운동이나 취미생활 음식문제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이미 노인 된 분들이 노후 준비를 못해 어려움을 많이 당하고 있고, 현재에도 마음은 있지만 환경이 좋지 못해서 노후 준비를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앞으로 사회적인 큰 문제가 될 것이라는 것이다.

그래도 노후 문제는 이런저런 많은 사람이 관심을 갖고 힘을 쓰는데, 정작 노후 다음 찾아오는 사후 세계와 그 삶에 대하여는 너무도 준비를 않고 무심히 보내고 있어, 심히도 안타까운 마음 금할 길이 없다.

오늘 말씀은 우리의 노후 다음에 어김없이 찾아오는 죽음과 죽음 다음에 펼쳐지는 그 세계에 대하여 준비하라는 말씀이다.

첫째, 보물은 무엇인가 ?

사람들이 보물을 돈이나 진귀한 보석이나 경제적 가치가 큰 물질로만 생각하는데, 물론 경제적 가치가 큰 물질이나 보석이나 돈이 보물이다. 그러나 우리 자신의 몸과 마음이 더 큰 보물이며 (고후 8:5, 신294), 우리의 재능, 우리의 어떤 실력과 정성과 우리의 시간들이나 건강 등,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좋은 것들과 장점들이 다 우리의 보물들이다.

둘째,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19절)

땅은 어떤 곳인가? 육신의 생명이 사는 동안 잠깐 머물다 가는 곳으로 우리가 영원히 머무를 곳이 아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이 이 땅에서 오래오래 살 것처럼 생각하여 현실의 삶에다가 너무 많은 것을 쏟아 붓고 정성을 들이고 있다.

또한 땅은 흙이요 사람의 몸은 흙에서 취했다. 그러므로 땅이라는 것은 곧 자기 육신의 몸이며 이 육신의 몸을 위해서 사용하는 모든 가치 있는 것들을 뜻한다.

우리가 생각해 보자 !

먹고, 입고, 마시고, 자기 몸을 치장하며 육신의 몸을 위하여 과시하며 잘 보이려고 하는데 그 얼마나 많은 것들을 쓰고 있는가? 명품을 비롯하여 좋아 보이는 고가의 물건들, 정말 삶에서 필요하여 쓰는 것은 말할 것이 없으나, 필요이상 자기를 과시하며, 쾌락을 즐기며, 뽐내려고 쓰는 것은 다 땅에다 보물을 쌓는 것이며, 죄 된 일에 사용하는 것들도 다 땅에다 쌓는 것이다.

그러나 땅에다 쌓는 것은,

좀이 먹고 녹이 슬어 삭아 없어지고 도둑이 도둑질 해 간 것처럼 허무하고 허탈하게 없어져서 빈털터리가 되어, 죽음 건너편 사후세계에서는 영원히 불행해지고 고통을 당한다는 것이다.

셋째,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20절)

하늘에 쌓는다는 것은, 성삼위 하나님과 그의 말씀과 교회와 하나님과 관계된 모든 선한 일에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 자신의 몸과 마음, 우리가 땀 흘리고 수고하여 모은 물질과 보물들, 우리의 재능, 시간, 건강, 갈고 닦은 실력과 좋은 것과 장점들을 하나님과 그의 나라를 위해 사용하는 것이다.

이런 보물들을 하늘에 쌓아두되,

1) 믿음으로 해야 한다. (롬14:23 신259, 히11:6 신365)

성삼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제 아무리 보물이며 선한 것이라 할지라도 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그 믿음에 의해서 바치고 헌신하고 헌금하고 사용해 나가야 하늘에 쌓는 것이다.

2)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해야 한다. (행12:23, 고전15:10)

제아무리 귀중한 보물을 바치고 자기 몸과 마음을 바쳐 헌신했어도 자기의 명예와 영광과 인기를 얻기 위해 했다면, 이는 무익한 것으로 하늘에 쌓은 것이 아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것이 하늘에 쌓는 것이다.

3) 은밀하게 행하는 것이다. (마6:118)

사람이야 알아주든 몰라주든 그에 연연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면 된다.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실 상급을 바라보고 바치며 행하는 것이다. 그럴 때에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하늘에 쌓는 것이 되어, 현실의 삶에서도 행복이 되고, 이 세상을 떠나 죽음 건너편 천국에서 찬란한 영광과 축복 속에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다.

대한 예수교 장로회 신암교회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교회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 가너회를 쉬

게 하리라 하나님 이

세 상을 이 처럼 사랑 하사 독생

자를 주셨

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

망치 않고

영생을 얻

게 하려 하

심이니라

담임목사 : 김 성 진

681-7001, 7008. 010-3861-7009

홈페이지 www.sinamch.com

이메일 : sinamch @ hanmail.net

시무장로 : 문정용 김정환 홍의남

찬송인도 : 임미이 홍희석 최명희 찬양지휘 : 이정순

반주 : 임예진 박진하 이다솔

주 일 낮 예 배

* * * * *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할지니라

1부 예배 (오전 7:45 교육관) 집례 김 선 진 목사

2부 예배 (오전 11시 본 당) 집례 김 선 진 목사

주 악 : 심신을 정결하게 예배에 임하는 기도

찬 송 : 1. 28 (새 찬송가 1, 28)

☆ 신앙고백 : 사도신경 낭송

☆ 성경교육 :

-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 ◎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도적질하느니라.
-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 ◎ 저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 ◎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 네 보물이 있는 그곳에
- ◎ 네 마음도 있느니라.

- 아 멘 -

찬 송 : 539 (새 찬송가 488)

기 도 : 목 사

성경봉독 : 목 사 : 마태복음 6 : 19 ~ 21 신 8

찬 송 : 찬양대

말씀선포 : 목 사 : 내 보물은 어디에 쌓을 것인가?

기 도 : 말씀대로 살고자 다짐하며

찬 송 : 545 (새 찬송가 493)

인 보 : 정성을 다하여 언보함예

교회소식 : 사랑의 인사를 나누세요 (김정환 장로)

☆ 송 영 : 3 (새 찬송가 5)

☆ 축 도 : 목 사

섬기는 사람들 [7 월 안내]

남, 문정용 조성희 공옥렬
여, 오정순 노인숙 이춘지 김 선 유덕남

주일 오후 예배 (오후 2시)

사 회 : 오정순 권사 (다음 노인숙 권사)

기 도 : 임수정 집사 (다음 공옥렬 집사)

말씀증거 : 김성진 목사 로마서 강해

합심기도 : 다같이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

수요 저녁 예배 (저녁 7시 30분)

사 회 : 이인순 집사 (다음 이수현 집사)

기 도 : 백금숙 집사 (다음 이매순 집사)

말씀증거 : 김성진 목사 이사야서 강해

합심기도 : 다같이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

새벽 기도회 (매일새벽 5시)

인도 : 목사 (마태복음 강해) - - - 자유로이 기도

유, 초등부 예배 (주일오전 9시, 본당)

예배, 각 반 분반 공부 (로마서) 문정용 홍의남 장로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장성한 후에도 바로 하리라

중, 고등부 예배 (주일오전 9시, 교육관)

1 부 : 말씀증거 : 김성진 목사

2 부 : 각 반 분반 공부 (로마서)

청년부 예배 (주일오후 3시 30분) 김정환 장로

청년이여 네 청년의 날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마음에
원하는 길과 눈이 보는 대로 좇아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인하여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금요 밤 기도회 (밤 8시)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니라.

2013 년도 신앙 표어 말씀

여호와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 * * * * 교 회 소 식 * * * * *

1. 월례제직회

오늘 오후 예배 후 3시 10분에 예전대로
월례제직회로 모입니다.

2. 화요 전도모임

매주 화요 오전 10시부터 전도사역이 펼쳐집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한 영혼을 사랑하여 전도합니다.

3. 수요 은혜의 시간.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은혜의 시간이 펼쳐집니다.
시간을 내서 함께하시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십니다.

4. 금요 밤 기도회.

금요일(12일) 밤 8시에는
2교구 전 구역 주관 기도회로 모입니다.
함께 하셔서 기도에 은혜를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5.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

유초등부 여름 성경학교와(7월 26-27일)
중고청년부 여름 수련회를(7월 29-31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자녀와 손자 손녀, 또한 주위에 어린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권고하시고 성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앙 교회에 출석하여 믿음의 가족이 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진리의 말씀과 성령님의 충만하신
은혜로 기쁘고 복된 신앙생활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새로 나오신 분 환영합니다.

☺ 류순임 님

중앙 주택

☺ 김종호 김지영 님 하운

중앙 주택

금주의 말씀 요약 (7 / 14) 2013

제 목 : 우리가 하나님의 성민이 된 원인
성경말씀 : 신명기 6 : 6 ~ 11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거룩한 백성으로 복을 받고 살았다.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거룩한 백성이 되어 축복을
받고 사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택함을 받아
영원한 축복을 받고 살게 되는 그 근본 원인은 무엇일까 ?

첫째, 수효가 많거나 잘나서가 아니다. (7절)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시
고 축복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뛰어난이나 선함 때문이
아니었다. 이스라엘 백성의 시조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당시에 뛰어난 민족들과 세력들에 비해 적은 수였고 일정한 삶
에 터전이 없이 이리 지리 유랑하며 살았다.

이스라엘의 직계 조상인 야곱의 가족이 흉년을 만나 식량 부
족으로 살길이 없어 이집트로 내려 갈 때는 그 수가 70 여명
뿐이었으며, (창세기 46:26~27) 그들의 삶의 행적을 살펴보면
도덕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깨끗하거나 선한 삶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의 거룩한 백성으
로 삼으시고 축복하신 것이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도덕적으로 뛰어나고 지혜
나 지식이나 착함이나 능력이 있어서도 아니다.

“형제들아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리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리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
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여 있는 것
들을 패하리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사랑치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전서 1:26~29 신 264)

둘째, 사랑하심을 인하여 택하셨다. (8절, 상)

사람은 사랑을 하는데 자기 마음에 들고 조건에 맞아야 사랑을
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과 오늘날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들거나

하나님께서 정하신 조건에 맞아서 사랑을 하시는 것이 아니고
무조건적으로 아가페 사랑을 하여 주셨다.

우리가 잘나거나 능력이 많거나 도덕적으로 완벽하지 못해도
우리를 측은히 여겨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푸셔서 하늘에 영원한
축복을 받을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신 것이다.

나아가서 부정하고 무능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거룩
한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님까지도 내어 주시고
십자가에 희생시키면서 사랑을 해 주셨으며 이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 축복을 받는 것이다.

셋째, 맹세를 지키고 이루려 하심이다. (8절, 중)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자신을 나타내시고, 말씀으로 세상을
다스리시며, 말씀으로 인생들과 교제하시며, 말씀으로 인생에게
축복을 약속하시고 맹세하셨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진히 붙어 넣어 주시고
그 믿음을 기뻐하셔서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에게 축복을 약속
하셨다. (창세기 17:3~7) 신명기 본문 말씀은 아브라함 때부터
500 여년이 지났는데, 500 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축복하겠다고
맹세하신 그 약속을 따라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아브라함의 후
손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 축복하셨고, 이사야 41:8~16 에는
아브라함 때부터 1,200 여년이 지났는데 그 약속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하나님 백성으로 삼아 축복하여 주셨다.

또한 신약 갈라디아 3:7~9에는 가문과 민족에 관계없이 누구든지
아브라함과 같이 성삼위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삼고 천국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셔서
영원토록 축복하실 것을 말씀하셨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 축복 받는 것도
이런 말씀과 약속하심에 따라 된 것이며, 우리의 어떤 공로나
선한 업적에 의해서가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고자 하심으로 된 것이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9절)

하나님께서 베푸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의 말씀들을 지켜 나가는 것이다.
그리하면 우리와 우리 자손의 천 대까지도 축복을 약속하셨고
약속하신 그대로 어지신 사랑을 베푸셔서 현생에서도 복을 누리
고 내생에는 찬란한 영광과 상급을 누리게 된다.

대한 예수교장교회 신암교회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교회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

게 하리라 하나님 이

세상이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

자를 주셨

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

망치 않고

영생을 얻

게 하려 하

심이니라

담임목사 : 김 성 진

681-7001, 7008. 010-3861-7009

홈페이지 www.sinamch.com

이메일 : sinamch@hanmail.net

사무장로 : 문정용 김정환 홍의남

찬송인도 : 임피이 홍희석 최명희 찬양지휘 : 이경순

반주 : 임예진 박건하 이다솔

주 일 낮 예배

* * * * *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할지니라

1부 예배 (오전 7:45 교육관) 집례 김성진 목사

2부 예배 (오전 11시 본 당) 집례 김성진 목사

주 악 : 심신을 정결하게 예배에 임하는 기도

찬 송 : 6, 30 (새 찬송가 2, 14)

☆ 신앙고백 : 사도신경 낭송

☆ 성경교독 :

○ 너는 여호와 네 하나님의 성민이라

◎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만민 중에서

○ 너희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효가 많은 연고가 아니라

◎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을 인하여

◎ 또는 너희 조상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이라

- 아 멘 -

찬 송 : 353 (새 찬송가 317)

기 도 : 김정환 장로

성경봉독 : 목 사 : 신명기 7 : 6 ~ 11 구 273

찬 송 : 찬양대

말씀신포 : 목 사 : 우리가 하나님의 성민이 된 원인

기 도 : 말씀대로 살고자 다짐하며

찬 송 : 351 (새 찬송가 321)

연 보 : 정성을 다하여 연보함에

교회소식 : 사랑의 인사를 나누세요 (홍의남 장로)

☆ 송 영 : 8 (새 찬송가 6)

☆ 축 도 : 목 사

섬기는 사람들 [7 월 안내]

남, 문정용 조상희 공옥렬

여, 오정순 노인숙 이춘자 김 선 유덕남

주일 오후 예배 (오후 2시)

사 회 : 노인숙 권사 (다음 흥희석 집사)

기 도 : 공옥렬 집사 (다음 최은희 집사)

말씀증거 : 김성진 목사 로마서 강해

합심기도 : 다같이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

수요 저녁 예배 (저녁 7시 30분)

사 회 : 이수현 집사 (다음 김영복 집사)

기 도 : 이매순 집사 (다음 이자한 집사)

말씀증거 : 김성진 목사 이사야서 강해

합심기도 : 다같이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

새벽 기도회 (매일새벽 5시)

인도 : 목사 (마태복음 강해) - - - 자유로이 기도

유, 초등부 예배 (주일오전 9시, 본당)

예배, 각 반 분반 공부 (로마서) 문정용 홍의남 장로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장성한 후에도 바로 하리라

중, 고등부 예배 (주일오전 9시, 교육관)

1 부 : 말씀증거 : 김성진 목사

2 부 : 각 반 분반 공부 (로마서)

청년부 예배 (주일오후 3시 30분) 김정환 장로

청년이여 네 청년의 날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마음에
원하는 길과 눈이 보는 대로 좇아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인하여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금요 밤 기도회 (밤 8시)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니라.

2013 년도 신앙 표어 말씀

여호와와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 * * * * 교 회 소 식 * * * * *

1. 화요 전도모임

매주 화요 오전 10시부터 전도사역이 펼쳐집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한 영혼을 사랑하여 전도합니다.

2. 수요 은혜의 시간.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은혜의 시간이 펼쳐집니다.

시간을 내서 함께하시면 하나님께서 기쁨 받으십니다.

3. 수요 밤 교재 공부

수요일 밤에 여름성경학교 성경교재 공부가 있습니다.

특히 유초등부 교사들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4. 금요 밤 기도회.

금요일(19일) 밤 8시에는

주일학교 유초등부 교사회 주관 기도회로 모입니다.

함께 하셔서 기도회 은혜를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5.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

유초등부 여름 성경학교와(7월 26-27일)

중고청년부 여름 수련회를(7월 29-31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자녀와 손자 손녀, 또한 주위에 어린이와 학생들이

참여하도록 권고하시고 성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앙 교회에 출석하여 믿음의 가족이 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진리의 말씀과 성령님의 충만하신
은혜로 기쁘고 복된 신앙생활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새로 나오신 분 환영합니다.

☺ 류순임 님

종암 주택

☺ 김종호 김지영 님 하운

종암 주택

대한예수교장로회 신암교회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교회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 가너 회를 쉬

게 하리라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

자를 주셨

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

망치 않고

영생을 얻

게 하려 하

심이니라

담임목사 : 김성진

681-7001, 7008, 010-3861-7009

홈페이지 www.sinamch.com

이메일 : sinamch@hanmail.net

시무장로 : 문정용 김정환 홍익남

찬송인도 : 임미이 홍희석 최명희 찬양지휘 : 이경순

반주 : 임예진 박진하 이다솔

광주광역시 서구 풍암동 1064 풍교부지 1호

금주의 말씀 요약 (7 / 21) 2013

제 목 : 넓은 문 멸망의 문, 좁은 문 생명의 문.

성경말씀 : 마태복음 7 : 13 ~ 14

대부분의 사람들은,

넓은 문과 넓은 길을 좋아하고 자기가 가는 길에 많은 사람이 함께하는 것을 좋아하며 자기의 길에 많은 사람이 함께하지 않을 때는 자기가 많은 사람이 함께하는 그 쪽 길을 찾아 간다.

그래서 아파트도 넓고 큰 평수, 승용차도 대형, 마트도 대형, 냉장고도 대형 냉장고, 또 패션이나 머리 스타일 휴대폰 등 어떤 유행이 돈다하면 누구에게 뒤질세라 그 대열에 합류해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하며 열외 되지 않은 자신의 삶에 자부심을 가지고 기분 좋게 살아간다.

일찍이 신앙의 세계에도 이런 바람이 불어와서

넓고 큰 것, 많은 사람이 찾는 그 문, 그 길을 좋아하고 찾아가며 그것이 마치 좋은 신앙의 길처럼 착각을 하고 사는데, 우리 생명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께서서는 무엇이랴 하셨는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

넓고 큰 문, 많은 사람이 함께 하는 그 길은 멸망의 길ियो, 좁은 문 좁은 길, 사람들이 찾지 않는 그 길은 생명 길ियो 생명의 문이라 하시며,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말씀하신다.

그렇다면 좁은 문은 무엇이고 넓은 문은 무엇인가?

첫째,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길은 좁은 문 좁은 길이며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은 넓은 문 넓은 길이다.

지구상에 현존하는 70 억쯤의 인구 중 예수님을 구원의 주님으로 믿는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은 약 13 억 명쯤이 된다.

약 60 억이나 되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넓은 문 넓은 길을 가고 있으며, 우리나라 인구 4,500만 중에서는 1,000 만 명쯤이 믿음에 길을 가고 있음으로 3,000 만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넓은 문 넓은 길을 가고 있다.

문이 넓고 길이 넓어 거리끼는 것이 없이 사람들이 하고 싶은 대로 무엇이든 행하며 자유롭게 살아간다. 또한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하기 때문에 동류의식을 가지고 그 길이 더 좋은 길인 것처럼 여기며 기분 좋게 살아가지만 안타깝게도 그 길의 결과는 영원한 고통이며 비참한 멸망의 길인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길은 좁은 문 좁은 길이며

제약 받는 것이 많고 찾는 이가 적다. 그렇다 해도

그 길은 영원한 생명의 길이며 평화의 복을 누리는 길이다.

둘째, 성경말씀대로 바르게 믿는 길은 좁은 문 좁은 길이며

인본주의로 믿는 것은 넓은 문 넓은 길이다.

13 억의 기독교인 중 로마 천주교와 그리스 정교회 교인들이 8 억 명쯤 되고,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종교개혁을 한 예수교인들이 5 억 명쯤 된다. 물론 천주교나 정교회라고 해서 다 인본주의로 믿고, 종교 개혁한 예수교라 해서 다 성경말씀대로 바르게 믿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천주교나 정교회 또는 예수교회 중에서도 수많은 교회들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말씀대로 바르게 믿는다고 하기 보다는 즉 인본주의 믿고 나가니 곧 인간의 죄나 과학, 인간의 사상이나 미신적인 것과 기복신앙, 또한 타락된 이 세상 문화를 받아 광란적으로 세속화 되어 나가면서, 그 길이 마치 기독교의 정통인 것처럼 자랑스러워하는데, 확실한 것은 이는 넓은 문 넓은 길이며 많은 사람들이 즐겨 찾는다 하여도 이는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며 상급을 누리지 못하는 길이다.(마태5:17~19)

그러나 성경말씀대로 바르게 믿고 생활하는 길은 그 길과 문이 좁아 제약받는 것이 많고 찾는 이가 적다. 그래도 이는 영원한 생명과 상급을 누리는 길로, 자부심을 가지고 자랑스럽게 가야 할 길이다. 찾는 이의 수가 적다고 해서 결코 멈출 일이 아니다.

여기서 한 가지 꼭 조심해야 할 것은 어느 뛰어난 신앙인의 도덕적 생활이나 사상이 성경말씀처럼 오해되어 철칙으로 지켜지는 부분이다. 과거 유대교에서도 그런 일들이 있어 오히려 하나님의 뜻과 일을 가로 막았으며, 오늘날도 이런 일이 있어서 심히도 안타까운 일이다.(마가7:5~9 신64)

성경말씀이 아닌데도 지켜야 할 신앙의 행위로 여기는 것 역시 하나님 앞에서 상을 받지 못하고 부끄러움을 당할 일이다.

셋째, 성경말씀대로 순종하는 길은 좁은 문 좁은 길이며

바르게 믿어도 순종하지 않는 길은 넓은 문 넓은 길이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삼상15:22 구433) “하나님 앞에서는 말씀을 지키는 자가 의인이다”(롬2:13 신241) 등등 하나님께서는 주님과 성경말씀을 바르게 믿은 대로 순종하고 실천할 것을 말씀하셨다. 순종하지 않는 길은 넓은 문 넓은 길이며, 순종하는 길은 좁은 문 좁은 길로 하늘에 천란한 상급과 영광이 있다.

주 일 낮 예 배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할지니라

1부 예배 (오전 7:45 교육관) 집례 김 성 진 목사

2부 예배 (오전 11시 본 당) 집례 김 성 진 목사

주 악 : 심신을 정결하게 예배에 임하는 기도

찬 송 : 1, 21 (새 찬송가 1, 21)

☆ 신앙고백 : 사도신경 낭송

☆ 성경교독 :

○ 좁은 문으로

◎ 들어가라

○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 크고 그 길이 넓어

○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 좁고 길이 협착하여

◎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 아 멘 -

찬 송 : 142 (새 찬송가 148)

기 도 : 목 사 (다음 홍의남 장로)

성경봉독 : 목 사 : 마태복음 7 : 13 ~ 14 신 10쪽

찬 송 : 찬양대

말씀선포 : 목 사 : 넓은 문 멸망의 문, 좁은 문 생명의 문.

기 도 : 말씀대로 살고자 다짐하며

찬 송 : 253 (새 찬송가 521)

연 보 : 정성을 다하여 연보함에

교회소식 : 사랑의 인사를 나누세요 (문정용 장로)

☆ 송 영 : 3 (새 찬송가 5)

☆ 축 도 : 목 사

섬기는 사람들 [7 월 안내]

남, 문정용 조상희 공옥렬

여, 오정순 노인숙 이준자 이인순 유덕남

주 일 오후 예 배 (오후 2시)

사 회 : 홍희석 집사 (다음 정명숙 집사)

기 도 : 최은희 집사 (다음 이옥심 권사)

말씀증거 : 김성진 목사 로마서 강해

합심기도 : 다같이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

수 요 저 녁 예 배 (저녁 7시 30분)

사 회 : 김영복 집사 (다음 이수현 집사)

기 도 : 이해랑 권사 (다음 이영진 집사)

말씀증거 : 김성진 목사 이사야서 강해

합심기도 : 다같이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

새 벽 기 도 회 (매일 새벽 5시)

인도 : 목사 (마태복음 강해) - - - 자유로이 기도

유, 초 등 부 예 배 (주 일 오전 9시, 본 당)

예배, 각 반 분반 공부 (로마서) 문정용 홍의남 장로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장성한 후에도 바로 하리라

중, 고 등 부 예 배 (주 일 오전 9시, 교육관)

1 부 : 말씀증거 : 김성진 목사

2 부 : 각 반 분반 공부 (로마서)

청 년 부 예 배 (주 일 오후 3시 30분) 김정환 장로

청년이여 네 청년의 날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마음에
원하는 길과 눈이 보는 대로 좇아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인하여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금 요 밤 기 도 회 (밤 8시)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니라.

2013 년 도 신 앙 표 어 말 씀

여호와와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 교 회 소 식 *****

1. 남 녀 각 전 도 회

오전 예배 후 12시 10분, 예전대로 각실에서

남녀 각 전도회로 모입니다.

2. 화 요 전 도 모 임

매주 화요 오전 10시부터 전도사역이 펼쳐집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한 영혼을 사랑하여 전도합니다.

3. 수 요 은 혜 의 시 간.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은혜의 시간이 펼쳐집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4. 여 름 성 경 학 교 와 수 련 회

유초등부 여름 성경학교를 7월 26일 오후 2시부터

열게 되었습니다.

중고청년부 여름 수련회는 7월 29-31일까지입니다.

특별히 자녀와 손자 손녀, 또한 주위에 어린이와 학생들이
참여하도록 권고하시고 성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앙 교회에 출석하여 믿음의 가족이 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진리의 말씀과 성령님의 충만하신
은혜로 기쁘고 복된 신앙생활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새로 나오신 분 환영합니다.

☺ 류순임 님

풍암 주택

☺ 김종호 김지영 님 하운

풍암 주택

금주의 말씀 요약 (7 / 28) 2013

제 목 : 불안하고 근심함은 나의 연약함이라
성경말씀 : 시편 77 : 1 ~ 15

시편 말씀의 대부분은 “다윗”을 통하여 기록케 하였고 “모세” “솔로몬” “고라의 자손” “에단” “아삽” 등 신앙의 선진들의 기도와 신앙의 고백으로 기록케 하셨다.

아삽은 다윗 왕 시대에 찬양대장 중 한 사람이며 당시에 아삽의 기록한 말씀들이 찬송가의 가사가 되기도 했다.

이런 아삽도 환란을 당하여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은 아픔을 겪는 고달픈 세월이 있었고 그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환란을 이겨내고 기록한 말씀들이 오늘 본문 말씀들이다.

오늘날 우리의 삶에서도 여러 가지 형태의 일들을 당하는데 시대와 공간을 초월해서 아삽의 체험을 통한 계시의 말씀들이 우리가 당한 현실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열쇠가 될 것이다.

어떤 일들을 당했을 때,

첫째, 자기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는다. (1절)

삶에서 원치 않는 일을 당하고, 예상치 못한 일들을 당할 때, 사람들은 당황하게 되고 근심 걱정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된다. 심한 경우는 자신이 감당하느니 차라리 죽는 것이 편하겠다고 자살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나 아삽은 고통스럽고 위험한 절망적인 가운데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자기 음성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부르짖었다.

어려운 일들을 당했을 때, 목사나 믿음이 앞선 선진들에게 기도의 도움을 청하는 것은 좋은 일이다. 그러나 이에 못지않게 중요한 일은 자기의 목소리로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다.

다른 사람들이 힘써 기도해줘도 정작 일을 당한 본인 자신이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고 기도를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며 역사하시기를 더디 하신다.

그러므로 어떤 일이 있을 때, 먼저 자기 자신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자신의 음성으로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시령과 응답을 받는 비결이다.

둘째, 주를 찾아 밤에도 손을 들고 기도했다. (2절)

사람이 어려운 일을 당하면, 자기가 아는 사람들 중에서

그 일을 해결할 수 있는 유력한 사람을 찾는다.

그러나 아삽은 하나님을 먼저 찾았고 밤에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기도했다. 사람들이 아무리 도와주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사람들의 도움은 헛것이 되기 때문이다.

셋째, 하나님을 생각하고 불안하여 근심했다. (3~9절)

어려운 일을 당해서 세상 것 의지하지 않고 자기 음성으로 하나님을 찾아 부르짖고 기도를 드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쉽게 응답의 역사를 아니 해 주신다.

어려운 일을 당한 것 자체도 힘이 드는데 더 힘이 드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을 안 해 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또 불안하고 근심이 되고 괴로운 것이다.

마음에 묵상하고 연구하기를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을 안 해 주시고 더디 하신들 설마 영원히 나를 버리실까?

다시는 나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으시려 작정을 하셨는가?

나에게는 어지신 사랑도 다 했고 오히려 노하심으로 그 긍휼 베푸실 것을 막으셨는가?

이렇게 근심 걱정하고 심령이 상하게 되었던 것이다.

넷째, 불안하고 근심함은 자기 연약함인 줄 깨달았다. (10~15절)

자기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없다고 해서 자신이 근심 걱정하고 불안해 한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렸거나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가 다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연약함 때문임을 깨달았다.

지난날 오랜 옛적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신 은혜를 추억해 보니, 열 가지 재앙을 내려 이집트를 굴복시켜 종살이 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셨고, 하늘에서 만나와 매추라기를 내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셨으며, 수많은 대적을 물리쳐 승리케 하셨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시고 누리게 하신 일 등,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베푸신 은혜와 끊임 없이 행하신 역사를 살펴볼 때, 비록 자신의 환란에 대한 기도의 응답이 더디어서 자신이 괴로움을 좀 더 당한다 할지라도, 믿음의 사람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역사에는 변함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오늘날도 그러하다.

우리의 처한 열악한 환경이나 힘든 일들, 우리가 이루고 해결하고자 하는 일들이 더디고 더디게 된다 하여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시령과 은혜는 영원토록 변함없이 계속된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신암교회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교회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자들아

다내게로오라내가너희를쉬

게하리라 하나님

세상을이처럼사랑하사독생

자를주셨

으니이는

저를믿는

자마다멸

망치않고

영생을얻

게하려하

심이니라

담임목사 : 김 성 진

681-7001, 7008. 010-3861-7009

홈페이지 www.sinamch.com

이메일 : sinamch@hanmail.net

시무장로 : 문정용 김정환 홍의남

찬송인도 : 임미이 홍희석 최명희 찬양지휘 : 이경순

반주 : 임예진 박건하 이다솔

광주광역시 서구 풍암동 1064 종교부지 1호

주 일 낮 예 배

* * * * *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할지니라

1부 예배 (오전 7:45 교육관) 집례 김 성 진 목사

2부 예배 (오전 11시 본 당) 집례 김 성 진 목사

주 악 : 심신을 정결하게 예배에 임하는 기도

찬 송 : 2, 31 (새 찬송가 3, 67)

☆ 신앙고백 : 사도신경 낭송

☆ 성경교육 :

○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라

◎ 하나님께서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리라

○ 나의 환란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했으며

○ 내 영혼이 위로 받기를 거절하였도다.

◎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불안하여 근심하였으나

○ 이는 나의 믿음이 연약함이라.

◎ 지존자의 오른 손의 해로 주의 백성을 구원하셨도다.

- 아 멘 -

찬 송 : 349 (새 찬송가 214)

기 도 : 홍의남 장로

성경봉독 : 목 사 : 시편 77 : 1 ~ 15 구 856쪽

찬 송 : 찬양대

말씀선포 : 목 사 : 불안하고 근심함은 나의 연약함이라

기 도 : 말씀대로 살고자 다짐하며

찬 송 : 457 (새 찬송가 401)

연 보 : 정성을 다하여 연보함에

교회소식 : 사랑의 인사를 나누세요 (문정용 장로)

☆ 송 영 : 8 (새 찬송가 6)

☆ 축 도 : 목 사

섬기는 사람들 [8 월 안내]

남, 김정환 조상희 공옥렬

여, 오경순 노인숙 이춘자 이인순 유민남

주 일 오후 예 배 (오후 2시) 베드로 헌신예배

사 회 : 김태용 집사 (다음 정명숙 집사)

기 도 : 김철진 집사 (다음 이옥심 권사)

말씀증거 : 김성진 목사 로마서 강해

합심기도 : 다같이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

수 요 저 녁 예 배 (저녁 7시 30분)

사 회 : 이수현 집사 (다음 유정숙 집사)

기 도 : 이영진 집사 (다음 유미애 집사)

말씀증거 : 김성진 목사 이사야서 강해

합심기도 : 다같이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

새 벽 기 도 회 (매일 새벽 5시)

인도 : 목사 (마태복음 강해) - - - 자유로이 기도

유, 초 등 부 예 배 (주 일 오전 9시, 본 당)

예배, 각 반 분반 공부 (로마서) 문정용 홍의남 장로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장성한 후에도 바로 하리라

중, 고 등 부 예 배 (주 일 오전 9시, 교육관)

1 부 : 말씀증거 : 김성진 목사

2 부 : 각 반 분반 공부 (로마서)

청 년 부 예 배 (주 일 오후 3시 30분) 김정환 장로

청년이여 네 청년의 날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마음에
원하는 길과 눈이 보는 대로 좇아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인하여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금 요 밤 기 도 회 (밤 8시)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니라.

2013 년 도 신 앙 표 어 말 씀

여호와와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 * * * * 교 회 소 식 * * * * *

1. 헌신예배 안내

오늘 오후 2시 예배는 베드로 남전도회

헌신예배로 드립니다.

준비하고 함께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길 바랍니다.

2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

유초등부 여름 성경학교를 잘 마쳤습니다.

수고하신 모든 분들에게 하늘의 축복을 소원합니다.

중고청년부 여름 수련회는

내일 29일부터 - 31일까지입니다.

참여하도록 권고하시고 성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 화 요 전 도 모 이

매주 화요 오전 10시부터 전도사역이 펼쳐집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한 영혼을 사랑하여 전도합니다.

4. 수 요 은 혜 의 시 간.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은혜의 시간이 펼쳐집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며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신앙 교회에 출석하여 믿음의 가족이 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진리의 말씀과 성령님의 충만하신
은혜로 가쁘고 복된 신앙생활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새로 나오신 분 환영합니다.

☺ 류순임 님

풍암 주택

☺ 김종호 김지영 님 하운

풍암 주택